

## 2026 봄 워크숍 <해방의 온도> 품평회

\*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 개선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이은채

역할: 음향오퍼

<b>1.&lt;해방의 온도&gt;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b>	
<p>연극 동아리에 들어와서 처음 함께한 팀이 춤팀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연극을 만들고 올린 모든 시간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사실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 재밌었지만 이렇게까지 연극을 사랑하는 이유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었는데 연극을 올리고 나니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p> <p>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오랫동안 연극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p>좋은 영화를 보고 긴 여운이 남는 것처럼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아있습니다</p> <p>이 여운이 아주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p> <p>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p>	
<b>2.피드백(워크숍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b>	
<b>연출</b>	<b>김혜림</b>
<p>피드백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저에게는 최고의 연출이었습니다.</p> <p>좋은 건 좋다고 맘껏 얘기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p> <p>다만 해주고 싶은 말은 연출로서 최선을 다하느라 매일 피곤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p> <p>앞으로는 몸을 더 챙기면서, 일상과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연극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p>	
<b>배우</b>	<b>서준혁, 최연진, 홍예진</b>
<p>배우들도 연습할 때 컨디션에 따라 연기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무엇보다도 배우들 본인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p> <p>앞으로는 컨디션을 잘 조절해가며 연극을 준비해봅시다,, 건강이최고!!!</p>	
<b>스텝</b>	<b>이은채, 김연우</b>
<p>더 일찍부터 조명과 음향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하며, 배우들 블로킹과도 맞춰보아야 했는데 각자의 역할에 더 집중하느라 많이 맞춰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p>	
<b>3.~에게 하고 싶은 말</b>	
<b>연출</b>	<b>김혜림</b>
<p>최고의 연출.. 앞으로 또 이런 연출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p> <p>다. 연출로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 머리 아픈 일들도 많았을텐데 내색없이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같이 하고싶습니다!</p>	

배우	서준혁, 최연진, 홍예진
<p><b>준혁</b>          갈수록 옛장수 선홍 그 자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본 공연날까지 음향을 잘 맞춰줄 수 있을지          배우들이 내 음향에 맞추게 했다는 것이 음향오퍼로서          역량이 부족한 결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고 본 공연 직전까지도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맞춰주어서, 그리고 너무 잘 대처해주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향에 맞춰 완벽하게 연기하는 모습을 오퍼실에서 지켜보던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p> <p><b>연진</b>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능력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스러운 연진이에서 시내로 몰입하는 그 순간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연습 때 자주 집중해서 봤던 기억          이 납니다          연습할 때 대사 템포가 빨라서 계속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본 공연 때는 템포를 맞추면서도 감정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모습에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엔 어떤 역할을 맡아 연기할지 너무 궁금합니다!</p> <p><b>예진</b>          예진이가 연기한 혜연의 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발음도 많이 노력한 것이 너무 보여서 고마웠습니다          대사를 하지 않을 때의 예진이의 표정연기나 행동들이          연극에 더 몰입하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진이의 연기에 제가 준비한 음향을 더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예진이가 앞으로 연기할 더 많은 배역들이 기대됩니다</p>	
스텝	김연우, 김윤희
<p><b>천사....</b> 뭐든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 뭐든지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조명오퍼가 처음이라 머리 아픈 일도 많았을거고 고생도 많이 했을텐데 묵묵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          았고, 항상 뭐든 세심하게 챙겨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다음에 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 또 잘 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p> <p><b>윤희</b>          그냥 사람으로서도 너무 본받고싶을 정도로 멋진 사람!          누군가에게 가르쳐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본인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윤희가 연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아하는 것들을 맘껏 좋아했으면 좋겠어요</p>	